

“충무공 호국정신 계승 ‘상승함대’ 구현 매진”

●이구성 제31대 해군 3함대사령관 취임

‘책임해역 완벽 방어’ 지휘역량 집중·실전적 교육 강화 기본·원칙 바로 선 부대 조성·부대원 인화단결 등 강조

“충무공 호국정신 및 상승의 전통을 계승,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상승함대’를 구현하겠습니다.”

해군 제3함대사령관(이하 3함대)은 1일 “지난 달 29일 부대 대강당에서 이구성(사진) 제31대 해군 3함대사령관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3함대 예하 주요 지휘관 및 장병 등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인사명령 낭독, 신임 사령관 취임사, 해군이 제창, 폐식사 등이 진행

됐다. 이구성 신임 제31대 해군 3함대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실험, GPS 교란,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3함대가 수호하고 있는 남방해역은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해상 교통로를 포함하고 있고, 충무공 이순신의 불패 신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함대사령관직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령관은 이를 위한 지휘 중점을 밝혔다. 먼저 ‘완벽한 책임해역 방어’에 매진, 모두가 최고도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휘역량을 집중하고 통합방위 수행 역량을 제고하는 등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둘째,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기본과 원칙 이바로 선 부대를 조성한다.

그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부대 운영이 되도록 부대원 모두가 합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대원들이 책임과 권한을 자율·창의적으로 행사할 때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이 부대의 목표를 향해 뭉치면 진정한 인화단결이 구현된다”며 “개인적 가족, 부대의 가치가 조화된 상승함대를 만들기 위해 사령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구성 신임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49기로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세종대 왕학장, 해군본부 인사교육처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 1처장, 해군 제2해상전투단장 등 해·육상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김기은동강대BI센터매니저맹주전남중기창장상

동강대학교는 1일 “김기은(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 창업보육(BI)센터 매니저가 최근 남원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창업보육인의 밤’에서 창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동강대 BI센터(단장 박경우·사진 맨 왼쪽) 입주기업인 ㈜로열프레시의 김윤성(사진 왼쪽서 두 번째) 대표는 우수신기술 창업인으로 선정됐다.

김 매니저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광주 북구청이 함께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동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며 청년 CEO 육성에도 힘을 보태 지난해 광주 북구청장상을 받았다.

김윤성(㈜로열프레시 대표)은 지난 2021년 식품전문 브랜드회사인 ㈜로열프레시를 창업, 젊은 감각의 디자인과 유통 마케팅 전략으로 광주 최초로 마켓컬리에 입점하고 B마트, 카카오톡 사 직거래, 미국 수출을 비롯해 광주 유일의 배민 소포 라이브 방송 경력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김다이기자



광주평화재단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 포럼

(사)광주평화재단은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전망’을 주제로 광주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광주평화포럼의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좌장으로 문정렬 외교광장 부이사장, 이순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재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미관계 개선, 중국과의 경쟁, 한반도의 평화통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상임대표는 “많은 전문

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사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혼돈스러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대립과 단절의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 강조했다.

광주평화재단은 평화, 인권, 통일, 연대의 4대 이념을 바탕으로 2008년 설립된 단체로,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세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평화포럼과 광주평화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주석희기자



전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성료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공유와 향후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22개 시·군 관계자 및 전문인력, 전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 사례 발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영암군·무안군·장성군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자 표창을 수상했다.

공무원 4명과 민간인 6명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우수 사례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53건 가운데 5개를 선정, 발표했다. 교육 자료와 홍보물 등을 전시해 지역 간 건강증진사업 추진 정보도 공유했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해 열심히 노력한 보건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순천농협 ‘사랑나눔 김장’...고령조합원 등에 전달

순천농협은 지난달 29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4년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순천농협 임·직원, 여성조직 연합회 회원, 다문화가정 등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약 370박스(5kg)를 마련, 순천지역 내 고령조합원과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최남휴 조합장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순천농협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지역농협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양홍렬기자



여주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우수기관’

여주시는 1일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65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실적을 검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분석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문 평가는 공공매립장 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관내에서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며 시설 운영 효율성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주시, ‘여성폭력 추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광주시는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지난달 29일 첨단지구 LC타워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민관협력협의회여성분과위원회 등 민·관·경 8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스토킹 피



해,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참여형 홍보부스를 마련,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소방본부 이광신·박성관·오세건 소방장 특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 3명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하는 북부소방서 이광신 소방장, 서부소방서 박성관 소방장, 광산소방서 오세건 소방장 등 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제 대응 분야 우수성을 인정받은 이광신 소방장은 대응 단계가 발령된 화재 현장 등 123건의 화재 현장 활동과 팀 단위 전술평가 평가관 참여, 실화재 훈련 교관 양성 과정 수료 등 화재진압에 크게 공헌했다.

박성관 소방장은 1천여건의 구조 현장에서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고 라이프 세이버 수상,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평가관 등 시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오세건 소방장은 3천여건의 구급활동뿐만 아니라 소방청 및 소방본부 태스크포스(TF) 활동, 특별구급대 시범사업 참여, 구급 관련 강의 등 생명보호 구급 대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수행 공적을 인정받았다. /기수희기자



담양군통합관계센터, 담양경찰 감사장 받아

담양군은 “최근 통합관계센터 관제요원 2명이 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담양통합관계센터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담양경찰서 112지안종합상황팀으로부터 실종지체장애인 수색 협조 요청을 받아 실종자의 거주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인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김경준 담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및 하태암 112지안종합상황팀장 등은 담양군통합관계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빠른 대처에 감사를 전하며 관제요원 2명에게 담양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담양군통합관계센터는 관제요원 12명이 4초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관내 389개소에 설치된 88대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남구 효덕동 7979봉사단, 취약계층 지원

광주 남구 효덕동 7979봉사단은 1일 “지난달 27~28일 이틀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 멀티탭 교체·설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난방·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사단은 내부에 자동 소화 캡슐이 장착된 멀티탭을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했다. /주석희기자

결혼

▲김명선·김옥임씨 장남 현호(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과), 박천재·정경지씨 장녀 운형(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과)은 7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메리모엠웨딩홀 지하1층 메이에르홀.